

GM 군산공장 회생 제외...지역민 "참담"

임단협 합의로 사실상 폐쇄...지역경제 타격 불가피 지역 정치권·재계 "정부 주도 매각...재가동 시켜야"

한국GM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교섭 합의로 군산공장 폐쇄가 사실상 확정되자 군산은 물론 전북지역은 "결국 울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침통한 분위기다.

그 동안 군산공장 정상화를 주장해 왔던 지역민들은 회생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 잠정 합의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노사는 23일 합의를 통해 군산공장에 근무하던 1850여명 중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직원 680여명에 대해 5월까지 추가로 희망퇴직을 받은 뒤 나머지는 향후 노사합의를 거쳐 부평과 창원공장에 단계적 전환배치하기로 했다.

지역민들은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며 "한국GM 노사의 합의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민들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공장마저 폐쇄가 사실상 결정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가 더욱 위정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민 강모씨는 "군산공장을 재가동해 무너진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방안은 사라진 채 결국 면피용 타협안으로 합의된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며 "협력업체의 줄도산에 이어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다 생산과 소비마저 줄면서 지역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지역 기관단체의 우려도 상당하다.

군산시와 군산상공회의소 등은 24일 성명을 내고 한국GM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합의로 폐쇄가 확정된 군산공장을 정부가 주도해 조속히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동신 군산시장, 박정희 군산시의회의장,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시정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노사 잠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부터), 문동신 군산시장, 박정희 군산시의회의장이 24일 오전 시정에서 한국GM 군산공장 매각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합의안에 군산공장 폐쇄 결정 철회가 빠져 비통하고 매우 참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시장 등은 "한국GM이 법정관리로 노조와 정부를 압박하고 합의를 촉구하는 전술로 군산을 희생양 삼았다"며 "그동안 전북도와 군산시가 보인 정성과 사랑의 결과가 '공장폐쇄'라는 것에 대해 시민은 배

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GM이 군산공장 매각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가 자금 지원 때 군산공장 매각 의사를 분명히 끌어내 주도적으로 국내의 자동차회사에 (매각해) 군산공장을 재가동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군산=박기섭기자 nogusu@연합뉴스

순창군 '강천 온천개발 사업' 본격 추진

2020년 완공...동굴형체험관 등 연계 관광휴양단지 조성

순창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강천 온천개발지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4일 순창군에 따르면 강천산 군립공원 인근인 팔덕면 청계리 일대 15만 1500㎡에 추진되는 온천개발지구사업이 2020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군은 사업비 494억원을 들여 관광호텔과 보양온천, 펜션, 수체험센터, 동굴형체험관, 온천관광정원 등 강천산 군립공원과 연계한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한다.

1지구인 팔덕지 수변 개발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며 민간사업자가 참여한다.

현재 군이 팔덕지 수변 개발사업 용지매각을 농어촌공사와 진행 중으로 하반기부터 사업에 들어간다.

2지구인 온천개발지구는 군이 추진하는 '수(water) 체험센터'를 비롯해 동굴형 체험관, 팔덕지 수변 개발사업지구와 연계하는 문화체험시설 등이 조성된다.

수체험 센터는 음용 온천수 등 자원을 활용해 예방 차원의 다양한 건강 체험프로그램을 관광화하는 사업이다.



이 센터에는 온천 치유 누리실, 스파 체험실, 테라피실과 온천광장, 족욕장, 야외풀, 족욕 산책로 등이 들어서며 내년 완공할 계획이다.

내년 말 완공 예정인 동굴형 체험관은 24억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동굴이라는 독특한 공간형태를 활용, 순창 온천수의 신비감을 부각하게 된다.

치유의 샘과 게르마늄 치유공간, 족욕장 등이 들어서며 내부에 안개 분수 등을 설치해 동굴의 신비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강천산 주변 관광자원화가 한층 강화되고 온천수를 활용한 치유관광이라는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장영근기자 jyg@kwangju.co.kr

익산시, 시내버스 무료환승 정읍시, 혁명 정신 기리는 '동학농민혁명기념제' 개최

30분→60분으로 시간 확대

익산시는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무료 환승 시간이 기존 30분에서 60분으로 확대된다.

무료 환승 확대는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8년 1월부터 무료 환승 30분 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다.

지난해는 시민들이 147만여건의 무료 환승 서비스를 이용했다.

무료 환승이 확대됨에 따라 시내버스 배차간격으로 환승에 어려움이 겪었던 농촌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와 운송업체의 재정 건전성 향상 등을 위해 무료환승제를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많은 시민들이 불편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시내버스 요금은 현금의 경우 성인 1400원, 중고생 1100원, 초등학생 700원이며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50원 할인혜택과 무료환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익산=유정원기자 yjy@



지난해 황토현 동학농민혁명기념제 체험행사. <정읍시 제공>

내달 12~13일 정읍 황토현

동학농민혁명군의 당시 생활을 체험해 보며 혁명 정신을 기리는 '제51회 황토현 동학농민혁명기념제'가 다음달 12~13일 동학 혁명군의 첫 전승지인 정읍시내 황토현에서 열린다.

행사에서는 당시 혁명군의 주 무기였던 대나무를 활용한 가상 전투 체험 '죽보전',

관공과의 전투에 대비한 '황토현 성 쌓기' 등이 열린다.

또 주리 틀기, 곤장 맞기 등의 형벌 체험과 주먹밥 만들기 먹기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정읍지역의 무형문화재들이 농악과 판소리 공연을 펼치는 '황토현에서 만나는 정읍', 정읍시립정읍사국악단의 공연 한 마당인 '우리 가락 우리 마당' 등의 문화프

로그램도 마련된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기리고 이름 없이 죽어간 농민군을 추모하는 곡들도 선보인다.

정읍시 관계자는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로서의 정읍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고창 '복분자 선연' '황토배기 멜론' 브랜드 대상 수상

고창지역 대표 농특산물인 '복분자 선연'과 '황토배기 멜론'이 2018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대상을 수상했다.

고창군은 24일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수상식(사진)에서 복분자 선연과 황토배기 멜론이 복분자와 멜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복분자 선연은 이번 수상을 통해 8년 연속, 황토배기 멜론은 2년 연속 대상으로 선정됐다.

고창지역은 전국 제1의 복분자 생산지로 지난 2004년 복분자 산업특구로 지정된 이후 4200여 농가에서 2000여t을 생산하고 있다.

또 지리적 표시제 등록, 생산이력제 실시 등 엄격한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

해 생산되고 있다.

복분자 선연은 당도와 유효성분, 향 등이 타 지역보다 뛰어난 특징을 갖고 있으며 많은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노화방지, 육체피로 회복, 혈관질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창군은 또 고품질 멜론 생산을 위해 새로운 재배기술을 도입하고 토양과 병해충 관리, 공동선별을 통한 생산부터 출하까지 일괄관리로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황토배기 멜론은 높은 당도와 풍부한 향 등 그 우수성을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아 홍콩에 수출하는 등 최고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고창=박정희기자 phj@kwangju.co.kr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 · 전원주택지

- 신안군 입해도 북동리 1810㎡ 저수지임 조용한생활지향 4700만원
- 나주시 동강면 옥정리 영산강 3136㎡ 전원생활지향 5700만원
- 곡성군 삼기면 대지와 전 681㎡ 광주서 30분 내 6천만원

주택 · 원룸 · 아파트

- 전원주택 한평 해변면 대지 966㎡ 집 79㎡ 테라스에서 차로5분 1억5500
- 농성동 대지 156㎡ 집 96㎡ 1층전세 4천안고 1억4500

투자 · 매도 · 교환

- 곡성군 죽곡면 심진강 임록부근 계획 관리지역 1439㎡ 팬션 등 적합 1억2천2백 전원주택 적합 4751㎡ 1억6천 임야 10512㎡ 1억
- 수목장(장래) 허가지 남구 덕남동 임 6645㎡ 경관중을 2억
- 수목원 허가지 남구 덕남동 임 8232㎡ 건평 1148㎡ 허가 10억
- 쌍촌동 소망도 대지 118㎡ 삼기주택 적합 1억5천
- 나주 남평시내 상업지 2919㎡ 개발적합공시가 8억8천 매도39억
- 신안동 전대정문쪽 토지 160㎡ 주택 70㎡ 초집합적합 1억7300
- 고흥 나로도부근 팬션 땅 9891㎡ 건평 267㎡ 객실 10개 7억6천
- 충진로 5가 도로점 상업지 490㎡ 삼기주택 7억6천
-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833㎡ 창고등 적합 1억5백만원
- 장흥군-읍 장흥여중 부근 1층 빌라부지 2272㎡ 5억
- 전북 고창군 무장면 태양광부지 19753㎡ 5억9천
- 동구 충진로5가 인접 수기동 상업지 400㎡ 5억

상가건물

- 북동 5층건물 대지562㎡ 건평 1637㎡ 임대생활적합 14억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대지 155㎡ 건물 263㎡ 은행 1억4천 매도 3억7천
- 충진로5가 요지 대지 261㎡ 5층건물 1128㎡ 은행 15억 매도 24억
- 북구 문흥동 대지 171㎡ 5층 삼기주택 491㎡ 임대생활적합 7억6천
- 양동시장 대로변 땅 2902㎡ 주상복합개발적합 은행 30억 매도 67억
- 순천만 팬션 대대동 땅 332㎡ 건평 285㎡ 방 8 년매출 1억선 은행 3억 매도 은행포함 6억7천 은퇴자 생활에 최적
- 양동 모텔-커피숍-노래방 대지577㎡ 건평 1164㎡ 시설중을 11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오피스텔

- 광주 동구 수기동 23-2번지
- 20층중 8층, 33평, 코너
- 전망좋은, 즉시 입주
- 내부 시설 완료
- 보 5백만원에 월50만원 임대가능
- 매매 - 9200만원 (일시불 조정가능)

문의. 010-3605-5000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